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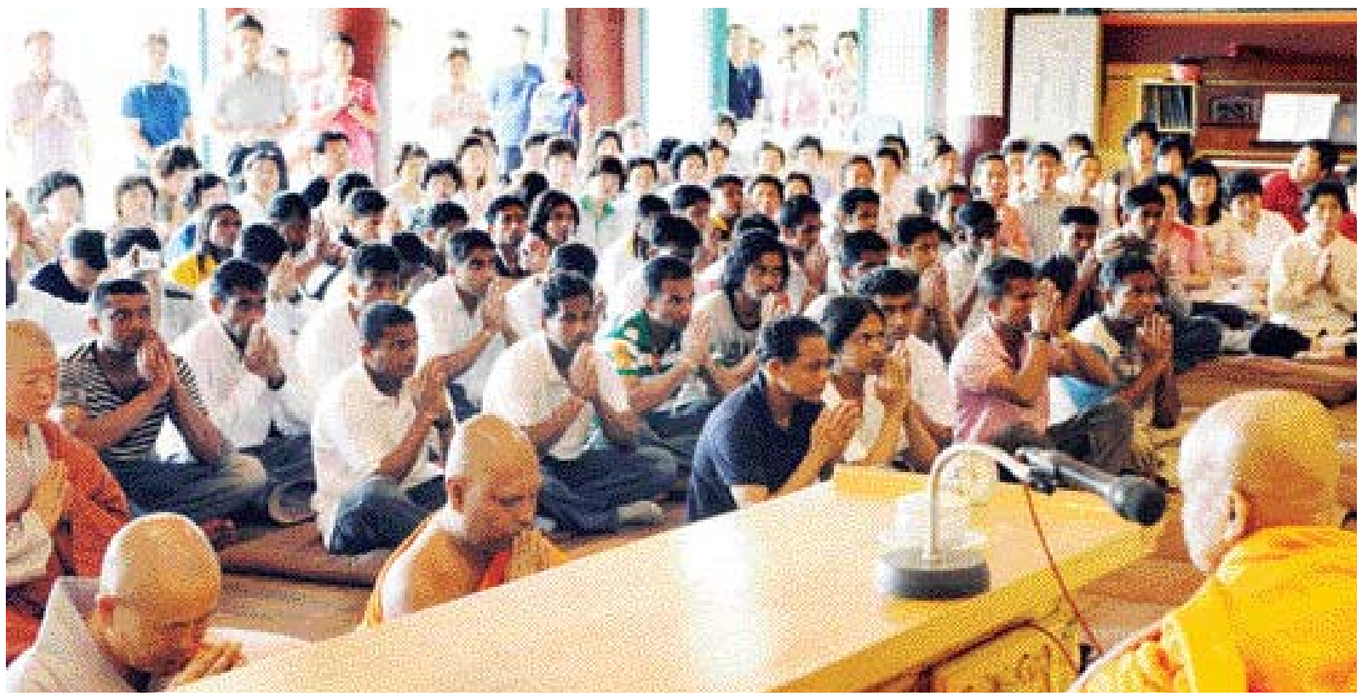
光州日報

광주 24/29℃ 목포 22/27℃ 여수 21/26℃

단기 4343년 (음력 5월 24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717호 1판 2010년 7월 5일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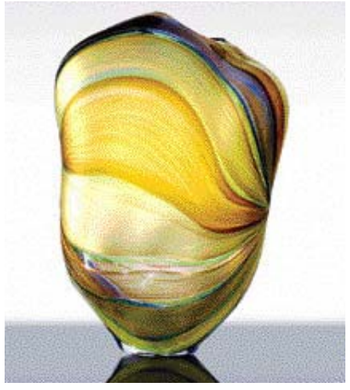
우한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 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광주 법회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4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에서 열린 '붓다락끼따 큰스님 초청대법회' 참석자들이 합장한 채 스님의 설법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최현배기자 choi@

VENICE GLASS FANTASIA 글라스 판타지아 지상전

▼스키아본 '바레나'(45×30㎝)



비단 펼쳐 놓은 듯 색의 향연

지구 내부 맨틀(mantle)의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이탈리아 베니스 대표 유리 공방 스키아본(Schiavon) 가문의 작품.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과 화려한 색의 조화가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화려한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작품을 감싸고 있는 색의 향연이 환상적이다. 여러 색상의 유리를 녹여 만들었지만 400여년 동안 이어온 이 공방의 기술이 더해져 색이 겹쳐지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처리됐다.

유리 재료에 철 성분을 집어넣어 작품 표면에 어리는 빛이 더욱 곱다. 자유분방한 곡선도 놓칠 수 없는 감상 포인트.

KTX 정차역 제외…年 승객 136만명 이탈 예고

고속철 없는 광주역 어쩔건가

市·국토부·코레일 책임공방속 발빼기 급급

오는 2014년 말 개통되는 호남고속철도(KTX) 노선에서 광주역이 제외되고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되면서 광주역 존폐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들은 광주역의 기능을 일부 회복시키기 위해 송정역까지 셔틀 전동차를 운행하고, 'KTX 역세권 개발계획'에 광주역을 포함시켰으나 주변 공동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4일 국토해양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변경수립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충북 오성~목포 간 노선의 역은 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송정·목포(임성리)역으로 확정됐다. 오송~광주송정까지 1단계는 오는 2014년, 광주송정~목포까지 2단계는 2017년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역이 제외된 이유는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직선화했기 때문이다. 정읍에서 광주송정으로 연결할 경우 서울~광주는 1시간33분이 소요되는 반면 광주역으로 이으면 2시간10분으로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고속철도 진입역을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와 국토해양부는 일원화 과정을 놓고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코레일은 광주역 제외 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일방적으로 광주송정역으로 정했다"면서 "셔틀 전동차가 운행되면 광주역의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 이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측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사전에 광주시와 협의했으며, 시가 광주역 주변 공동화 대책 수립을 지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27일 광주역 활용방안에 대해 협의하면서 광주시는 광주역 미진입을 명시한 기본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의견을 냈다"며 "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광주역을 광주송정역으로 통합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통합 및 존속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국비 지원을 요청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레일 허준영 사장의 '광주역 제외 결정된 바 없다'는 국회 발언에 대해서 코레일 관계자는 "수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연결선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코레일은 지난해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의 통합을 위해 '광주권 고속철도 정차역 운영방안'에 대해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지난해 광주역 이용객 188만명 중 72.3%에 이르는 136만명이 고속철도 이용객으로, 이들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광주역의 기능은 크게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역에는 고속철도 18편, 무궁화·새마을 등 32편이 운행되고 있으며, 2014년 말부터는 무궁화·새마을·화물차 등만 다니게 된다.

정봉현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철도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광주역을 광주송정역으로 통합해야 하지만 수요·운영수익·운행효과·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광주역에도 고속철도가 운행돼야 한다"며 "광주역에 고속철도가 안 다닐 경우 도심공동화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총리, 이대통령과 독대

사의 표명 한 듯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후 북중미 3개국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독대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배석자가 없었던 만큼 대화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져지 않고 있다.

여권의 한 정통한 당국자는 4일 "어제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온 후 정 총리를 만나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두 분이 독대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면담에서 사의 표명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30일 기자회견 때처럼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하지 못한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밝혔을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는 정 총리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개각을 할 수 있도록 진퇴 여부를 이 대통령의 판단에 맡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 총리는 그만둘 뜻이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이 인사의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 수능 11월18일…EBS서 70% 출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당초 예고했던 것보다 일주일 늦춰진 11월18일 시행되고 시험 문항의 70%가 EBS 교재 내용과 연계돼 출제된다. 또, 응시원서 접수 후에도 지정된 기간 내에 시험영역과 과목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1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5일자로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시험은 11월11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일정과 겹침에 따라 일주일 늦어진 11월18일에 시행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25일부터 9월9일까지 12일 간이다.

시험 문항수 대비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70%로 높아진다. EBS 교재에 나온 중요 개념·원리, 그림·도표 등을 활용하거나 지문을 재구성하고 문항을 변형하는 방법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비리 저지르면 곧바로 퇴출

완도군 원아웃제 도입

완도군이 직원이 부정과 비리에 관여하거나 연루되면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에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2일 군청 회의실에서 올해를 '부패척결 원년의 해'로 정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선포식'을 열었다. 김종식 군수의 '민선 5기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 선언'을 시작으로 전 직원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과 서약서 전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직원들은 청렴 의지를 거듭 다졌다.

군이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말 그대로 단 한 건의 비리를 저질러도 공직 생활을 그만두게 하는 제도다.

김종식 군수는 "인사, 공사, 계약,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로 청렴을 요구하겠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국 제일의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